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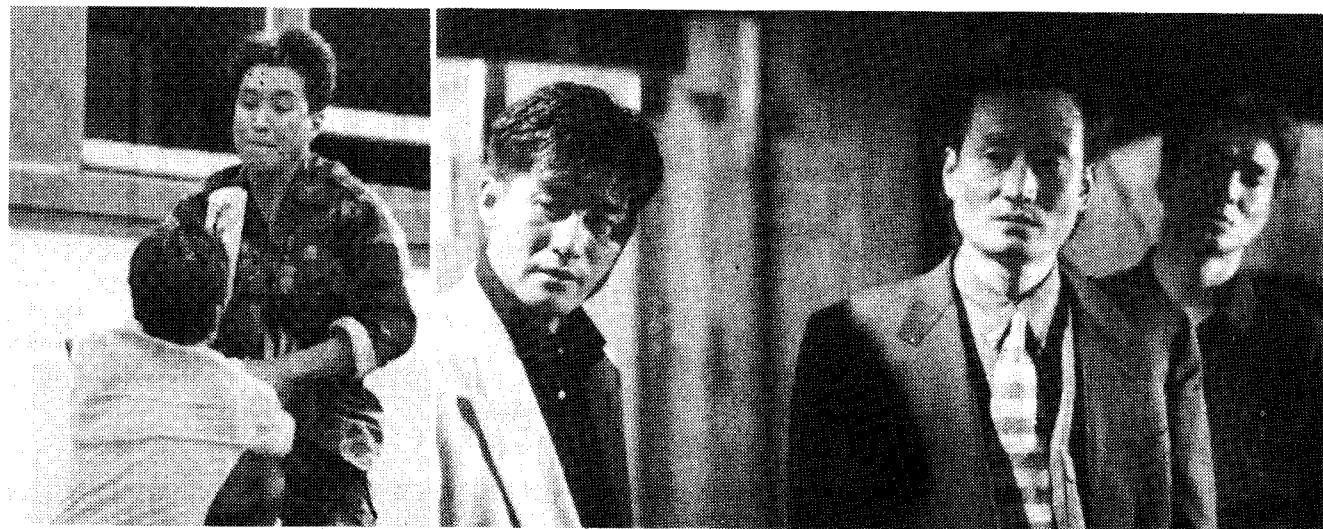
□ 한국소설속의 백수

'창조적 백수'로 거듭나라

국어사전을 펼쳐보면
'백수'라는 단어는 없으며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덜렁한 건달'을 의미하는
백수 건달이 존재할 뿐이다
문학 속에 나타난 백수의
명확한 의미를 인지한다면
올바른 백수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

오 대 호

(국문석사졸업)



▲요즘은 백수를 주제로 다룬 창작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화해내었다고 평가받는 작가 중의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작품 속에는 백수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작중의 주변부 인물로 자주 등장한다. 여기서는 '주체의 경제적 자립 의지'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손창섭 소설의 작중인물들을 긍정적인 유형의 백수와 부정적인 유형의 백수로 나누어 보려고 한다.

첫째로, 자신들을 용인하지 않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탓하면서도 자신의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꾀한다는 의미에서 '형사'

기 위해 방향을 계속한다. 하지만, 그가 '형사'의 달수처럼 경제적 자립 의지를 갖고서 지속적으로 구직전선에 뛰어든다는 사실에서 긍정적인 유형의 백수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자신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갖지 못한 채 경제적 자립 의지를 상실해버린 부정적 유형의 백수로는 '생활적' (1954, '문예')의 고동주와 '미해결의 장' (1955, '현대문학')의 화자인 지상, '유실물' (1956, '사상계')의 홍철수, '설중행' (1956, '문학예술')의 관식, '잉여인간'의 천봉우

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와 조건에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긍정적 유형의 백수'와 그렇지 못한 '부정적 유형의 백수'를 구분적으로나마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전적 의미에서의 '백수'는 사실상 문학적 화두가 되기에는 소재적 가치가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가진 게 아무 것도 없는 덜렁한 건달'을, 그야말로 '덜렁한 건달'을 주인공으로 삼아 사건을 전개해가다 보면 이야기의 긴박감이 떨어져 독자로부터 서사적 관심을 감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백수'보다는 오히려 좀더 강렬한 작품 소재가 될 수 있는 '강박'이 더욱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90년대 중반 장안의 화제를 끌고 왔던 TV드라마 '모래시계'와 같은 우수어린 '강박' 이야기나 풍자적으로 전(傳)의 형식을 빌려온 성석제의 '조동현 약전(略傳)'과 같은 회화적인 '강박' 이야기가 작품성을 논외로 치더라도 대중의 관심을 더욱 끌어들일 수 있었다는 사실에서 '백수'의 소재적 가치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IMF의 경제통치를 받아야 하는 지금의 사회현실을 감안할 때, '백수'는 '실직자'의 또다른 명칭이 될 수 있기에 '백수'야말로 현재적으로 의미심장한 화두라 아니할 수 없다. 세기말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백수'는 손창섭 소설의 인물들에게서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주어진 환경 속에 매몰되거나 자신의 좌표를 상실한 채 망각적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신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새롭게 일어서는 '창조적 백수'일 것이다. 좀더 나아가서 이야기하자면, 사실 문학 속에서 우리가 그려내고 찾아야 하는 인물은 '달수'나 '익준' 같은 긍정적 유형의 백수가 아니라,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땀흘리며 일하는 '아름다운 노동자'의 모습일 것이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백수'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새롭게 일어서는

'창조적 백수'일 것이다

(1955, '현대문학')의 달수와 '잉여인간' (1958, '사상계')의 채익준은 '약간의 무리를 무릅쓰다'면 긍정적 유형의 백수라고 할 수 있다.

먼저 '형사'의 달수를 살펴보면, 스물세살의 법대 고학성인 그는 친구 규홍이의 집에서 신세를 지긴 하지만, 자신의 학비와 식비를 벌기 위해 매일 같이 구직전선에 뛰어든다. 군대 기피자라는 오명을 받고 소설은 검지 손가락이 잘리면서 끝나지만, 달수는 자신의 경제적 처지와 조건을 인식하면서 계속해서 경제적 자립 의지를 굽히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50년대를 살아가는 긍정적 유형의 백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잉여인간'의 주인공 채익준은 삼십대 중반을 넘은 치과의사로 거의 매일 출근하여 신문을 읽는 것이 일이다. 그는 외국인을 상대로 정직한 장사를 벌여볼 궁리를 하며 자본 출자자를 찾

등의 인물을 들 수 있다.

먼저, '생활적'의 고동주나 '미해결의 장'의 지상, '유실물'의 홍철수, '설중행'의 관식 등은 당시에 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마치거나 중퇴한 지식인적 인물임에도 경제적 자립을 꾀하지 못하고 의존적 삶을 '그저' 살아가기만 하는 20대 고학력자로 형상화됨으로써 부정적 유형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잉여인간'의 천봉우는 채익준과 마찬가지로 만기의 중학교 동창인데, 6·25 때 입은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부인의 경제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전적으로 인한 피해의식에 젖어사는 경제적 무능력자로서 또 하나의 부정적 유형의 백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백수(白手)를 넘어서
손창섭 소설의 인물들을 통해 우리

1. 백수(白手)에 대하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백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의 의미는 현재 특정한 일없이 놀고 먹는 사람 정도를 나타낸다. 즉 '한시적으로 경제적 자립 능력이 부재한 사람'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어사전을 펼쳐보면 '백수'라는 단어는 없으며, '가진 게 아무 것도 없는 덜렁한 건달'을 의미하는 백수건달(白手乾達)이 존재할 뿐이다. 다시, 백수에 따라 붙는 '건달'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건달'이란 하는 일없이 빈둥거리고 돌아다니며, 남의 일에 트집부리기 잘 하는 사람 혹은 돈도 없이 난봉을 부리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건달'이 타자에게 직접적 피해를 끼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 우리가 상용하는 '백수'라는 말은 '백수건달'의 줄임말이기도 하거나 타자에게 '건달'보다는 피해를 덜 끼치는 사람 혹은 직접적 피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 속에 나타난 '백수'의 명확한 의미를 인지한다면 '올바른' 백수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손창섭의 1950년대 소설 속에서 '백수'의 전형을 찾아 보고, 나아가 '주체의 경제적 자립 의지'를 기준으로 긍정적·부정적 유형의 백수를 나누어 설명하고, 1990년대말 경제적 식민지화가 가속되는 지금 과연 문학 속의 '백수'는 어떤 모습을 띠 수 있는 지 짚어보고자 한다.

2.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백수(白手)'

물질적·육체적·정신적인 결핍의 1950년대를 시대 분위기에 걸맞게 개성적으로 재구성한 손창섭은 1950년대 뒤흔친 사회 현실을 가장 잘 형상

자식사랑·형제우애는 사회적 보험

유 원 준

(사학과 교수)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대가족제도를 선호하여 왔고, 지금도 3대동락을 자랑스런 미풍양속으로 칭송하고 있다. 이러한 성향은 유교의 가치관에 힘입은 바 크며,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현실적 측면이 작용한 것이기도 하다. 사망률이 대단히 높아서 상당수가 결혼 가정이고, 특히 유아사망률이 70-80%에 달했던 시대에 여러 자식과 손자·손녀를 거느리고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대단히 행복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당대의 명장 광자의가 고관대작을 지냈을 뿐만 아니라 1백명의 자식을 두어 모든 이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그를 계기로 '자손중다'가 부·귀·수·강령과 함께 오복의 하나에 포함되는데도 3대동락에 대한 선호를 엿보기에 충분하다.

대가족제도는 동족공동체라는 또 하나의 틀에 의해서 보호 유지되어 왔다. 향촌공동체는 경제적 사회적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혈연공동체였기 때문에 구성원간의 인간관계는 몇 겹의 끈끈한 중층구조를 형성하였다. 모든

만 나름대로의 많은 안정기제가 전통사회 내에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능한 흥부보다는 그러한 동생을 돌보지 않는 놀부에게 집중된 비난여론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경쟁보다는 조화를, 독점보다는 더불어 사는 측면을 선호했던 성향의 발로였으며, 그 틀 속에서 경제적 약자·백수들의 생존 공간 또한 어느 정도 마련될 수 있었다.

전나라 때 상양은 각종 제도를 혁신하면서 성년이 된 자식들을 결혼시켜 분가하도록 법제화한 일이 있다. 이러한 강제 분가조치는 결국 전나라의 생산성을 극대화시켜 친화통일의 기초를 닦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사실은 대가족제도·동족공동체가 지닌 백수에 대한 보호막이 얼마나 든든했는가를 잘 반영한다.

이같이 강한 상호부조의 전통은 법제상에도 군본상속으로 나타난다. 우리와 중국의 전통사회에서는 큰아들에 대한 약간의 우대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비료적 균등한 재산 상속의 전통이 이어져 내려왔다. 특히 임진왜란 이전에는 딸에 대한 상속도 아들과 큰 차별없이 이루어져 왔음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모든 자식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터전이나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군본상속의 주된 관념인데, 이는 경제적으로 매우 무능했거나 아무런 대궐도 없이 자식만 양산했던 흥부에 비해 유산을 독차지한 죄·물론 그밖에도 많은 잘못이 있긴 하지만-로 인해 부정적 인간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놀부에게도 군본상속의 관념이 어떠한 것인지 쉽게 그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관념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해서 우리 부모들은 서구인과 달리 '대학육'은 물론 결혼식을 올려주고, 전셋집이라도 마련해 주는 것'까지 부모가 해야 할 당연한 도리로 여긴다. 특히 서울 올림픽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자기 능력으로 집을 마련할 꿈을 포기하게 된 대다수 젊은이들은-아무리 신세대라도-이러한 부모들의 사고방식을 가장 바람직한 전통(?)으로 보존하고 싶어한다.

군본 상속은 자연히 재산의 분할을 촉진하게 마련이다. 때문에 특별한 증식 요인이 없는 한 어지간한 부자도 3-4대를 지나면 평범한 가정으로 몰락하고 만다. 따라서 전통사회는 외형적 안정에도 불구하고 부단한 부의 집적과 해체가 진행되는 변화상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전통시대의 부모들은 형제간의 우애를 통해 사회적 보험을 들게 했고, 지금도 각종 상속을 통해 자식과 손자의 생계를 보장해 주려는 눈물겨운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부모들의 헌신적 노력이 백수를 양산하고, IMF체제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아닐까?



개인의 일은 곧 구성원 공동의 일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가 발달할 수 밖에 없었다. 폐를 저지른 자를 추방시키거나 잡단으로 '이치메'하려는 동네 어른들의 성토 뉴스가 최근까지도 신문 지상에 소개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전통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네 삶의 터전이었던 대가족제도와 동족으로 이루어진 향촌사회에서 가장 중시되던 인간상은 '더불어 살 수 있는 원만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러한 사회구조는 비록 경제적 약자나 무능자 일리라도 인심을 잃지않는 한 나름대로 삶의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사회상에 나타난 내용을 분석해 보면 도무지 유지하기 힘든 가계에도 불구하고 그런대로 안정성을 유지해 나가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된다. 여기에는 곁에 잘들어나지는 않지만

대학인과 함께한 20여년 - 유니콥 가족

unicoop

취업? 쉬~워!

오늘의 취업정보
(02)
700-9111



한국대학신문 취업정보서비스

· 취업정보자동안내(ARS) : (02)700-9111
· PC통신(Uni-World) : 01410 또는 01411 접속후 'unicoop' □
· 인터넷 : http://www.unicoop.co.kr

한국대학신문

멀티미디어센터
Tel (02)276-1100

발간정보: 060-023-0113(정보이용료: 308.80원, 3분 48초) / 276-1100(한국대학신문 제100호)

프랑스어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화와의 만남은
알리앙스 프랑세즈에서

alliance française

'98년 3월·4월 학기개강: 3.9(월)

BEF I II, MA I II, NSF I II III, AP I II, PAN I II, ESP I II, 자유 회화반, 시사 뉴스반, 동시통역반, 독해작문반, 상업 무역 불어 및 비서직 학위 준비반, 비디오 시청각반, DELF·DALF 준비반

'98 알리앙스주관시험

● DELF·DALF 시험
프랑스 정부 교육성 주관하의 프랑스어 지식 및 구사 능력 학위증 발급
● 상업 무역 불어 및 비서직 학위증
프랑스 상공회의소 주관 학위증 수여

연수·유학상담 및 수속대행

• études en France
• voyages
• stages de langue

이제는 알리앙스에서 직접하세요.
'98 여름·가을학기 언어연수

seoul-centre ☎ 755-4972, 5702(중구)
nam-seoul ☎ 555-1125, 1126(강남)
taegu ☎ (053)255-4630(중구)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화의 국제학교
(세계 100여개국에 1000여개의 알리앙스)

Alliance Française
AMNISTIE ET JUSTICE
FRANCAISE

운전면허 조기취득 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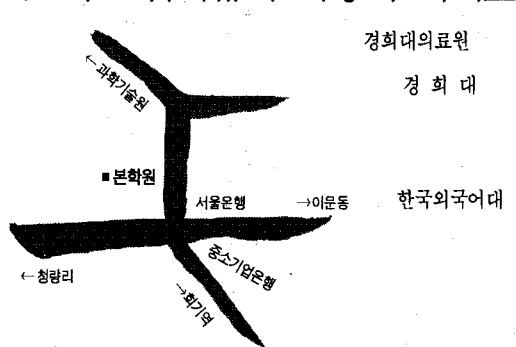
*취업필수과목

(98.3~4월중 취득)

98 신학기 맞이!

총 교육비 대폭 할인 20%

- 점수대행(과별, 단체, 특별할인) + α
- 책임교육(편리한 시간 배정)
- 합격률 95% 이상
(기초 및 실습 최고의 시설완비)
- 도로주행, 시내연수, 일차교육
- 점수→교육→취득까지 최상의 서비스



상담 : 경안 운전면허 네트워크 ☎963-4278, 8407